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데일리

지역의 기자



외교부가 예산을 사용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이데일리 제공)

“국가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일들이 있어요. 기자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됩니까?”

기자 일을 하다 보면 보도 전에 술한 타협 요구를 받는다. 기사를 내기 전 보도 내용의 대상자에게 연락해 입장을 묻고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 절차여서다. 민감한 이슈일수록 보도 예정 사실을 미리 알게 된 당사자 측은 정부와 기업, 단체와 개인을 막론하고 자신들에게 걸끄러운 이슈가 사회에 알려지기 전에 타협을 시도한다.

지난 2023년 이맘때 외교부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마주 앉았다.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였다. 외교부의 예산 유용 사실을 취재해 보도를 앞둔 시점이었다. 외교부 해외 주재 대사관 중 한 곳이 세금으로 배정된 예산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와 골프 등에 사용해오고 있었다.

그 대사관은 감사원의 사각지대였다. 감사원이 나가서 예산 사용을 들여다보더라도, 현지 사용처를 일일이 검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악용되고 있었다. 결산 증빙에서 유흥업소는 ‘일반 호프집’



외교부가 예산을 사용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이데일리 제공)

으로 둔갑했고,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골프와 캐디 비용은 해외 정부 관계자 면담으로 기재해 피해 가는 방식이었다. 증빙 영수증은 대체로 엉터리였다. 사용처도, 날짜도 제대로 적히지 않은 간이영수증만 제출한 직원 개인 계좌로 정부 예산이 지급된 사례도 솔하게 발견됐다.

문제의 대사관이 있는 현지로 출장을 나가 마주한 현장은 더 기가 막혔다. 대사관 측이 외교 행사를 열었다고 기재한 호프집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유흥업소였다. 외교부의 사용 영수증을 비교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사전 답사를 온 한국 기업의 비서인 척 잠입해 내부 환경을 들여다봤다. 30대 초반인 내 나이보다 열댓 살

은 어려 보이는, 땀내를 지우지 못한 여성 접대부들이 양주를 들고 실새없이 톰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공식 해명과 반론을 듣기 위해 마주한 자리, 외교부 관계자가 대뜸 꺼낸 말은 ‘이해해 달라’ 였다. 대사관에서 유용한 예산은 정부 예산 내 업무 추진비 중 해외협력사업 예산이었다. 주로 해외에서 다른 국가로 국경을 넘는 탈북민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협조를 구할 때 쓰이는 예산이다. 그렇지만 평상시 관계를 쌓아두기 위해 ‘불가피한’ 사용이 있다고 했다. 정리하자면, 대의를 위한 사용이었다는 것이다. 좋은 목적을 위해 때때로 일부의 불법, 편법은 어쩔 수 없다는



외교부가 예산을 사용한 골프장 현장 모습

항변이 돌아왔다.

다만 대사관 내에서 근무하는 개인이 얼마든지 엉터리 영수증을 내고 사적 유용이 가능한 환경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침묵이 이어졌다. 그런 방식의 외교가 과연 최선이냐는 질문에 외교부는 침묵했다.

대신 기삿거리를 우선적으로 주고, 다른 취재가 필요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다른 언론사 한 곳에서도 ‘탈북민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도를 취소해줬다는 말도 덧붙였다.

납득할 수 없는 해명 앞에서 보도에

마음을 굳혀가던 때였다. 외교부 관계자가 비난하듯 덧붙였다. 나를 유일하게 망설이게 했던 말이었다.

“기자님 때문에 이 예산 줄어들면 탈북민 못 구합니다?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목적이 옳다면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고심이 길었지만, 외교부의 해명에 동의할 수 없었다. 내게는 대의를 위해 사실을 조용히 물어달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기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어린시절부터 가졌던 신념 때문이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나에게서는 아버지

**외교부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
탈북민 관련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내역 일부 공개**

	예산항목	사용처	금액	사용자
2018년 9월 21일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예산 (업무추진비)	유흥주점	281만 킵	공사참사관 외
2022년 10월22일 (주말사용)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예산 (업무추진비)	골프	913만 4000킵	공사참사관 외
2022년 12월25일 (주말사용)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예산 (업무추진비)	골프	690만킵	공사참사관 외
2023년 4월16일 (주말사용)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예산 (업무추진비)	골프	775만 5000킵	정영수 라오스 대사 외
⋮				
약 5년간 최소 22회 탈북민 예산(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확인				

자료= 외교부 내부 문건

이데일리가 입수한 외교부 내부 예산 문건 일부 발췌한 그래픽(© 이데일리)

의 피냄새가 묻은, 평생의 직업윤리이자
신념이 있어서다.

발 그만해”

**남산으로 끌려갔던 아버지...
정부의 '대의'는 틀렸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말도 안 돼. 제

어린시절의 나는 종종 새벽에 아버지의 비명을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아버지가 ‘그날의 꿈’을 꾸는 날이면 온 가족이 함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의 10대는 누군가에게 울고, 사정하는 아버지의 악몽과 비명이 함께였다. 달려가 깨우면 악몽에서 힘겹게 벗어나던 아버지는

늘 침묵했다. 어린 날의 나는 그저 영문을 몰라 어머니와 다른 친척들에게 물을 뿌리었다.

“아빠는 왜 무서운 꿈을 많이 꿀까요?”

어렵게 들었던 대답은 어린 시절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네 아버지 남산 끌려갔다 와서 그래. 네 아버지가 알고 지내던 기자가 아니었으면 아마 죽어서 나왔을 거다”

아버지는 단지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남산에 끌려갔다고 했다.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명목하에 정부가 얼마든지 일반 시민을 끌고 가 두고, 고문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 시대엔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던 때였다고 했다. 소위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던 아버지가 살아서 나올 거라 기대했던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그 시절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멀쩡하게 돌아왔던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었던 사람은 있었다. 가족과 친구, 동료 모두가 포기했던 그 시점에, 아버지가 끌려가 있었던 수십일 간, 한 기자가 하루에 세 번 정부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아침에 출근하며 한 번, 점심 먹고 나면 한 번, 퇴근하기 전에 한 번. 대통령 비판했다고 끌

려갔던 그 사람, 혐의가 입증됐냐고. 언제 풀려나느냐고.

남산으로 끌려간다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된 건 중학교에 들어간 시점부터였다. 사회 수업 시간에 중앙정보부에서 자행했던 고문이 어떤 강도였는지, 어떻게 행해졌는지 알게 됐던 그 순간. 국가 안보를 위해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했던 정부 앞에 타협하지 않았던 신념이, 기자의 고집이 한목숨을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됐던 시기였다. 그게 열 네 살의 내가 평생을 기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다.

외교부의 제안은 끝내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신념을 꺾을 수 없어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던 시절에 당했던 인권유린을 평생을 트라우마로 안고 살았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딸이 기자가 되어서 가진 하나의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